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奉安堂)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Plan of Charnel House Connected with Community Space

한혜선* / Han, Hye-Sun

Abstract

Because the hatred and phenomenon of NIMBY for charnel house become an issue, it is the actual condition that charnel facilities are not activated in urb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ce plan of charnel house that introduces the community concept; and then shows the way of interior design for charnel house connected with community space. The following researches are drawn based upon the purpose. First, the present conditions and general functions of charnel house are considered closely and revised funeral policy that affects the organization of interior space in charnel house is analysed. Second, the case study for charnel house is limited to the indoor types among the existing researches for charnel house plan. Four charnel houses where were built after 2000 are selected for building standard of space organization in charnel house connected with community facility. Third, the concept and function of community space are considered and the space which can accommodate in charnel house is investigated. Fourth, the concept and organizational framework model of charnel house connected with community facility as a intermediate area in urban indicate. Fifth, the concrete interior plan for charnel house connected with community space is proposed on the design case of charnel house that are located in urban a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reduce a complicated matter with local residents and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charnel house in the future as the existing charnel facilities that have financial difficulty should make a remodeling plan including the community space that give mutual connection to area.

키워드 : 봉안당, 봉안실, 참배실, 커뮤니티 공간

Keywords : Charnel house, Columbarium, Shrine, Community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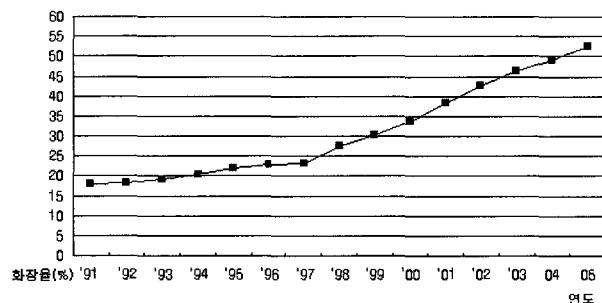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장묘문화로 인한 묘지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장례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적극 권장함으로 화장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율은 1991년 17.8%에서 지난 2005년 전국 화장율이 52.6%로 증가되었고 <표 1> 국민들의 장사 방법에 대한 의식이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10년경에는 화장율이 7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에서 화장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74.8%)이고 인천(68%), 서울(64%), 울산(61.7%) 등의 대도시가 높았던 반면 전남(27.2%), 충북(29.7%) 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묘지를 위한

토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노령인구의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¹⁾. 이와 같이 대도시 지역의 화장율은 증가하지만 대도시 지역의 봉안당 시설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표 1> 화장율 연대별 변화²⁾



1) 2006년 10월 보건복지부 정책홍보팀 발표내용

2) 2006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 정회원, 신흥대학 건축설계과 강사

봉안당의 입지는 대부분 지역과 멀리 떨어진 부지나 기준 종교단체에서 건물 확장공사를 하면서 봉안 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봉안당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님비(NIMBY)³⁾현상으로 인한 대립으로 추진 단계에서 계획이 무산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혐오감을 없애고 갈등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기회의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개념으로서 봉안당 내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여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과 욕구충족을 통한 지역사회와 시설물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봉안당의 대규모 시설설립으로 인하여 녹지를 훼손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 시키는 것 보다 지역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유족들의 거주지와 근거리 확보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봉안당에 관한 연구 자료를 고찰하고 봉안당의 개정법에 관한 현황과 봉안당 사례조사를 통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법규 개정으로 인한 봉안당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현재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실내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설계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공간구성을 제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설정한다.

첫째, 봉안당의 정의와 현황을 알아보고 2001년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봉안당 내부공간의 구성 및 특성을 정리한다.

둘째, 봉안당의 사례조사는 국내 봉안시설에 관련된 연구 문헌 중에서 옥내형 봉안당으로 한정하며 인지도가 있고 이용객이 많은 봉안당 중 2000년도 이후에 건립된 봉안당 4곳을 조사, 공간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공간 구성의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커뮤니티 공간의 개념과 기능을 알아보고 봉안당 시설에 수용 가능한 실들을 검토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도심 내 지역의 중간 영역으로서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의 개념과 공간 구성 모델을 제시한다.

다섯째, 도심 내 봉안당 계획을 목적으로 설계된 사례를 통하여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한 봉안당 실내 공간 계획과 설계 지침을 제안한다.

3)NIMBY (Not In My Backyard) -내가 속해있는 지역에는 절대로 혐오시설을 들 수 없다는 증후군. 어떤가에는 반드시 입지해야 할 시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나,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설치를 원치 않는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

2. 봉안당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봉안당의 정의와 현황

(1) 봉안당의 정의

봉안당(奉安堂)은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지 않고 안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05년 5월 25일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은 일제시대에 유입된 일본식 용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표준화하고 관련 서비스 용어도 KS규격으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납골'은 '봉안'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표준화 되었으며 봉안단, 봉안실, 봉안위, 봉안증서 등 약 50여개의 용어가 새로 정해졌다. 이는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실시된 조치였다.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은 뼈를 거두어들인다는 뜻의 납골이라는 용어가 화장 장례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봉안은 신성한 존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으로 고인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⁴⁾.

(2) 전국 봉안당의 현황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수는 약 24만 명이고 화장 후 약 70%가 봉안당에 안치되고 있다. 전국 봉안당은 2004년 기준 총 153개소이고 봉안능력에 대한 봉안가능 기수는 67%이다⁵⁾. 이는 기 봉안기수(33%)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봉안기수이나 2004년 한 해 봉안실적이 봉안능력의 8%이상인 것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화장 문화로 볼 때 충분한 봉안기수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규모 건립비용을 들여 봉안 기수에만 충실히 봉안당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봉안당 자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편법운영이 생겨나고 또한 향후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표 2> 봉안당 현황 (2004. 12월말 현재)

공·사설구분		봉안능력	기 봉안기수	봉안가능기수	2004년 봉안실적
계	공설				
153	83	70	1,447,987	476,162	971,825
					116,784

(3) 봉안당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인식

최근 화장 및 봉안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결정 과정에서 설치 지역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봉안시설의 공급이 부족하고 주민들과의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고 추진 단계에서 계획이 무산될 경우 발생되는 손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역의 주민들은 필수시설로서 장묘시설의 설치에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시설 그 자체에 대한 위험성과 관리능력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4)2006년 5월 26일 산업자원부 홍보 관리관실 홍보자료 내용. 임.

5)보건복지부 2004년 장사시설 현황 통계자료

해소하기 어렵고 교통체증, 환경오염과 지가 하락 등 아직도 팽배해있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님비현상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님비현상 극복 방안⁶⁾

방안	내용
1.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설득 및 이해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2. 현대 감각적 시설 및 자연 친화적 시설	혐오시설 이미지를 없앤 건축물 조성
3. 최첨단 유해물질방지 자동 시스템 도입	유해물질 배출 기준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 제시
4. 지역주민에게 복지혜택, 편리성, 고용 증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체육시설, 노인정 등과 같은 시설을 함께 설치 개방
5.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 조정 역할 자가 필요	전문기, 학술단체 모임, 시민단체 등이 협동 및 조정 등 방법론 제시

2.2. 봉안당 관련 법규 현황

해마다 늘어나는 묘지로 인한 자연 환경의 해손과 묘지 유실 문제로 정부는 장묘문화 개선의 새로운 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01년 1월 12일 시행 되었다. 개정내용에는 분묘의 설치 크기를 축소하여 묘지 면적을 줄이고 분묘설치 기간을 두어(시한부 묘지 사용) 일정기간 후 화장, 봉안을 하도록 정하여 묘지 면적 을 점차적으로 줄임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며 또한 사설 봉안 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크고 작은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축, 리모델링 계획이 활성화 되어질 전망이다. <표 4>

화장에 대한 인식 변화로 매장 문화가 감소되고 개정법에 따라 봉안 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봉안당의 설치기준이나 설치 장소, 보관 설비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미흡하고 안전 기준에 따른 시설의 기준, 봉안실내의 봉안 단 높이 제한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의해 도시지역 안에서 묘지관련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봉안당은 종교 집회장의 내부에 설치하는 봉안당에 한하여 준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⁷⁾

도시지역 내에서의 봉안당 건축은 법률에 의해서 입지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안당이 지역사회의 시설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봉안당의 도시지역 내 입지가 허용되어야 한다.

<표 4> 장묘 관련 법률 개정 내용

개정사항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현재)
1. 분묘의 설치 크기 축소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 개인묘지 : 30㎡(9평) 이내 - 집단묘지 : 80㎡(24평) 이내	- 개인묘지 : 30㎡(9평) 이내 ※ 합장의 경우도 동일 - 집단묘지 : 10㎡(3평) 이내
2. 분묘의 설치 기간 신설로 사용 기간의 합리화	없음	- 분묘의 기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 가능. 최장 60년 (단, 지방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 가능)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3. 사설남골시설 설치 완화로 화장, 남골제의 확대 보급	- 도지사 허가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사항
4. 시정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신설	없음	-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폐쇄 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 가능
법의 실현 효성 확보 강화	별책 강화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 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하여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

2.3. 봉안당 내부 공간의 구성 및 특성

봉안당의 내부 공간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크게 고인의 신위를 모시고 기리는 참배 공간, 관리 공간, 공용 공간의 세 가지로 분류하며 각 공간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5> 봉안당 공간 구성 요소

행위 공간 구분	공간 구성
공용 공간	출입구 흘, Lobby, 휴게 공간, 매점, Restaurant, 통로, 화장실
참배 공간	봉안실, 참배실
관리 공간	사무실, 기계실, 창고

(1) 공용 공간

로비는 입구에서 들어서면서 기능을 분리하고 연결해주는 공간으로 폐쇄적이지 않도록 하고 휴게공간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휴게공간은 유족들과 이용자들이 편하게 쉬는 공간으로 혼잡하지 않도록 대규모 공간보다는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2) 봉안실

봉안실은 화장 후에 유골을 안치하는 곳으로 봉안단이 바둑판 형태로 배열되어 봉안함을 넣는 방식이다. 봉안실의 크기는 봉안함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봉안함 수를 무리하게 늘리면 창고 이미지가 강하므로 공간형태에 맞는 봉안단 배치가 필요하다. 봉안단의 배치는 봉안단을 배치하는 공간에 봉안단이 벽체에 면하거나 봉안단 사이 벽체 유무에 따라 독립형, 개방형, 또는

6) 유복순, 공설 남골당 설치유형에 관한 연구: 광주 시 사례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석사논문, 2004. 08

7) 법제처, 종합법률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복합형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입지 환경에 따라 둘 또는 세 가지 형태를 혼합 배치할 수 있다. <표 6>

<표 6> 벽체의 유무에 따른 봉안단의 배치 유형

형태	평면	입면	사례
독립형			
	소규모의 실들로 나누어 봉안 단 사이의 통로 폭을 확보하면서 3면 이상의 벽면에 봉안 단을 설치, 독립성을 주는 배치 형태로 현재 교회, 성당, 종전회 등 각 단체, 기관을 위한 전용 추모 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고 있다.		
개방형			
	특실을 나누지 않고 메인 복도를 두고 봉안단을 배치하여 벽체 없이 봉안 단이 칸막이 역할을 하는 배치 형태로 많은 봉안단 설치 가능		
복합형			
	특실을 크게 나누어 4면의 벽면에 봉안 단을 설치하면서 독립성을 가지고 중앙에 복도 폭을 확보하면서 칸막이 역할의 봉안 단을 설치, 개방 감을 주는 배치 형태		

(3) 참배실

재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유족 또는 조문객이 제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자의 수에 따라 일실 또는 합동실로 구분한다. 일실 형은 봉안실 주변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기능적으로 봉안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동실 형은 건물 내에 여러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집중을 대비하여 봉안실과 거리를 두어 혼잡을 피해야 한다.

<표 7> 참배실의 평면 유형

형태	일실 형	합동실 형
특징	종교별 참배 의식을 행하거나 독립적 공간을 필요로 할 때 적당한 유형	많은 참배객들을 수용하기에 적당하고 필요에 따라 파티션을 이용 시각 차단이 가능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 가능한 유형

(4) 관리 공간

관리공간은 봉안당을 관리, 경영하는 곳으로 건물 내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거나 통제하고 사용자와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망자의 데이터를 관리하여 사이버 봉안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간으로 사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자리하여야 하며 여러 기능을 가진 공간이므로 기능별 배치 및 동선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관리 공간 중 사무 공간 또는 안내 테스크는 일반적으로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최초로 들어오는 유족, 조문객의 문의 또는 안내를 서비스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3. 봉안당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의 사례조사는 국내 봉안시설에 관련된 연구 문헌 중에서 옥내 형 봉안당으로 한정하며 공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건립한지 오래된 봉안당 시설들은 낙후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00년도 이후에 완공된 봉안시설로 인지도가 있고 이용객이 많으며 다른 평면 형태를 보여주는 봉안당 4곳을 조사, 공간구성, 평면, 조닝 및 동선 등을 비교 분석<표 8>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봉안당 공간 구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례조사 결과 네 곳의 봉안당은 공간 구성에서는 봉안당에 필요한 공간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공간의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봉안실이 중앙홀 또는 중정을 중심으로 전체 공간에서 사방으로 배치되어있거나(A, C) 입구에서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B, D) 관리 공간은 출입구에서 근거리에 설치하거나(B, C) 관리동을 따로 두고 운영하는 곳(A, D)도 있었다.

참배공간은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오픈공간으로 장점이 되지만 통로와의 동선이 엉켜 혼잡함을 줄 수 있고(C)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합동실로 사용하는 경우(B, D)와 봉안실과 인접하여 구성(A)되어지기도 하였다. 조사된 봉안당 내에는 휴게공간이 따로 구분되어진 곳(A, D)도 있지만 봉안실 부근에 오픈공간으로 마련되어진 곳(B)도 있어서 산만함을 줄 수 있다. 대부분 접회를 위한 공간은 종교적인 행사를 위함이고 외부공간을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한 곳도 있으나 유족을 위한 시설에 대한 배려는 큰 반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배려나 서비스 프로그램은 행하고 있지 않았다.

4. 커뮤니티 공간의 개념 및 구성

4.1. 커뮤니티 공간의 개념

커뮤니티(Community)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공동사회, 공동체, 국가, 도시, 읍, 면, 학교 등의 지역적 공동사회를 가리키며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일반 사회를 가리키기도 하는 공동체 사회라고 정의 할 수 있다⁸⁾.

선행연구에서 커뮤니티 공간은 지역에서 생활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기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 간의 접촉과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 사회 시설로 정의 한다.

8)국어대사전, 교육도서, 1988, p.2056

<표 8> 봉안당의 사례분석

A. 자 자 유 로 청 아 공 원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평면	조닝 & 동선	외관	내부 공간
	설치 연도	2001	봉안 능력	42,000		
	연면적	2,440 M ²				
B. 통 일로 추 모 공 원	공간 구성	추모 1,2관 (봉안실, 참배실, 사무 공간) 기독교 전용관, 관리동, 식당, 휴게 공간,	평면	조닝 & 동선	외관	내부 공간
	공간 분석	관리 동과 식당, 휴게 공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종교관을 따로 두고 있다. 1층 출입부를 진회장 소로 활용하고 2층 봉안 실은 중정부분을 사이에 두고 복합형으로 위치하며 실 내부에 자연광 유입으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각 실마다 개인, 부부, 가족 봉안함으로 나누어 있으며, 봉안 실 내부 봉안 단에 악식의 참배단을 설치하여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배려하였다. 오픈형의 참배공간이 복도 끝부분에 자리하거나 영상 제례 실을 운영하고 있다.				
C. 양 산 천 불 사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웅진읍	평면	조닝 & 동선	외관	내부 공간
	설치 연도	2002	봉안 능력	30,510		
	연면적	1,478.9 M ²				
D. 김 해 신 어 공 원 추 모 관	공간 구성	사무 공간, 참배 실, 봉안실, 창고	평면	조닝 & 동선	외관	내부 공간
	공간 분석	사찰에 위치하며 지상 1층의 원형 건물로 중앙의 중정으로 자연광이 유입되고 중정 밑 중앙 출입로를 통해 참배공간이 위치하여 오픈공간으로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지 않으나 관리상 용이하게 되어 있다. 사찰에서 재를 올릴 수 있는 이점으로 본 건물에서의 참배시설은 축소되어 있다. 봉안실은 복합형으로 창은 없으며 사무 공간 및 화장실 등을 출입구 주변에 위치, 봉안실과 분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커뮤니티의 의미는 사회 공동체의 삶을 이상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적, 교육적으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신적 건강과 정서적인 면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에 필요한 사회화 공간으로 개념 지을 수 있다.

기존 봉안당이 개방하는 공간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능한 공간만을 개방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역주민

들이 그 공간을 그들의 요구대로 맞게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봉안당 내에 현대의 다변하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안당 영역의 경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상호 연계성을 갖는 공간계획이 요구되어진다.

4.2. 커뮤니티 공간의 구성 요소 및 특성

커뮤니티 시설은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의 형성 및 기능을 수행하려는 목적에 따라 전시나 공연, 교육, 행사 및 집회 등의 복합적인 기능 수용을 주로 한다.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과 일반적인 대용시설과 기능을 비교하여 나타내면 <표 9>와 같다.

<표 9> 커뮤니티 공간의 구성 요소⁹⁾

공간 구분	세부 공간	기능	커뮤니티 시설 내의 대용시설
공연	공연장, 영화관	문화 예술행위의 공연	대강당, 소강당(다목적 흘)
전시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미술, 조각품, 사진 등 의 자료 전시	임대, 또는 상설 전시실
교육 및 보존	도서관, 자료관, 문화원	각종 자료의 보존	서고 및 열람실
행사 및 집회	회의장, 강당, 집회실	회의, 세미나, 집회	대강당, 소강당(다목적 흘)
체육	체육실, 기타 운동시설	체육활동	체육실, 레저실

커뮤니티는 지역성, 공공의 결속, 상호작용의 성격을 가진다.¹⁰⁾ 지역성은 시설이 형성되는 지역의 특징적인 성격을 공간에 반영하고 공공의 결속은 내 외부 공간의 접근에서 나타나는 공공성과 공간 배치에서의 개방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용자 간 또는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되는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커뮤니티 공간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시각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공간에 표현되어지는 요소들을 내부공간을 위주로 분류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0>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

특성	내용
지역성(Locality)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공공성(Public Interest)	시용자 접근이 허시 가능하고 전입부분에 반영
개방성(Openness)	공간과의 연계성을 반영하는 공간의 생략
상호 작용성(Interaction)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공간의 경험성을 반영하는 소통공간

<표 11>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에 나타나는 공간 표현 요소

공간 표현 요소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			
	지역성	공공성	개방성	상호 작용성
전통적 재료의 사용	■			
지역의 전통적 개념을 형태나 색채로 공간에 표현	■			
공간 속에 주변 자연 환경 유입	■			
중정 또는 내부광장의 열린 공간	■	■		
입구의 변화에 의한 진입 유도	■			
쾌적한 보행 공간	■			
실내 재료의 투명성		■		
공간의 다 목적화	■	■	■	
자연 광의 내부 유입		■		
중앙 흘에서 각 실을 상호 연결	■	■	■	
주변과의 조화로운 재료와 색체		■		

9)박영기, 커뮤니티시설의 배분모형 및 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권 6호 1994. 6

10)김은정·박언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복합문화시설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학회 학술 발표 논문집 24권 1호 2004. 4

5.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공간 계획

본 장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의 개념을 세우고 봉안당 공간 구조 모델을 제시하여 그 모델을 바탕으로 도심 내 봉안당 계획을 목적으로 설계되어진 사례를 통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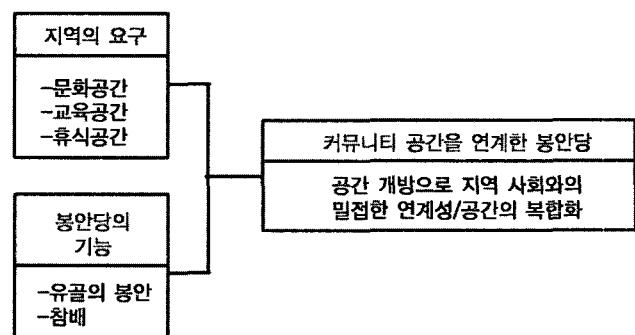
5.1.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의 개념

봉안당은 유골을 안치하고 망자의 혼을 기리는 공간으로 전통적으로 그 개념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까지도 도심 속의 영역에서는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봉안당은 도심 속에 속하고 도심은 봉안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봉안당은 도심 내 지역속의 중간 영역으로서 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봉안당과 도심 지역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각각의 지역 사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봉안당과 도심 지역의 상호작용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의 개념을 정리하면 봉안당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골의 봉안과 참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활동 특성 및 요구에 따라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의 복합형태로서 문화, 교육, 휴식공간으로 개방하여 지역 사회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데 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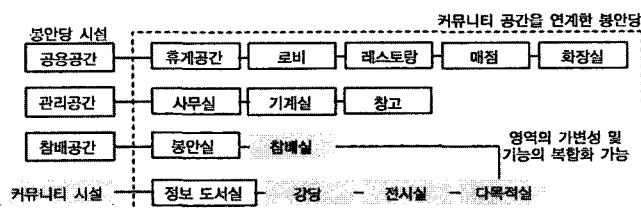
<그림 2>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의 개념도

5.2. 공간계획

(1) 공간 구성 모델

공간 구성은 봉안당 공간은 공용 공간, 참배 공간, 관리 공간으로 구분하고 커뮤니티 공간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 문

화, 휴식 공간으로 정보 도서실, 전시실, 강당, 다목적실을 두고 정보 도서실을 제외한 공간들은 영역의 가변성을 주거나 공동 기능이 가능한 실들은 복합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시하며 기능적, 또는 공간적 유사성에 의해 병합이 가능하도록 제안 한다. 공간별 구성에 대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공간 구성 모델

(2) 공간 구획 및 동선 체계

본 봉안당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이고 구조상 무리가 있으므로 중정을 두는 공간 계획은 배제하였다. 또한 봉안당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기능을 위한 출입이 원활히 하도록 구성하였다.

봉안당의 출입구는 조문객을 위한 주 출입구와 최초 봉안함과 유족이 들어오는 부 출입구로 나누어 제안하고 부출입구는 최초 봉안 시 채를 올리는 것을 감안하여 참배실과 동선을 짧게 하고 휴게공간은 봉안 실 주변과 출입구 부분 등에 두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배치하였다. 봉안당의 내부 공간 구획은 크게 출입구 동선을 주는 로비와 안내 데스크 주변에 관리 사무실을 두어 관리 동선을 공용공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 시켜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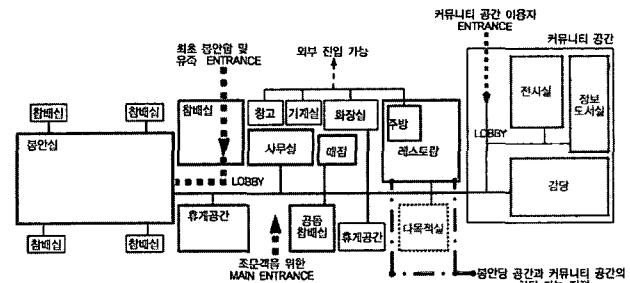
봉안실은 전체 공간 속에 가장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하여 봉안단의 독립형과 복합형의 배치로 선택의 폭이 넓도록 하고 참배실은 소규모 형으로 봉안실 주변에 배치하여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참배실은 봉안실과 거리를 두어서 소음과 혼잡함을 피하도록 하고 명절 또는 한식 등에 많은 참배객들을 수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봉안당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은 필요에 따라 서로 차단 또는 오픈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다목적실은 참배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참배실로 사용하여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과 인접하여 배치하였다.

커뮤니티 공간은 따로 로비공간을 두고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강당은 공간 내의 상호 보안을 위해 대강당 중심의 공간 구성보다는 소강당의 복합된 형태로 소규모 강연 및 전시, 도서실과 회의실 등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배치하였다. 전시공간은 지역의 교육시설 등에서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공간을 열고 정보도서실은 지역 주민들이 도서를 대출 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선 상 출입구와의 거리를 두어 배치하였다.

봉안당에서의 동선은 동선의 형태보다는 기능을 우선으로 보아 각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공간은 진입동선을 분리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모임 집회 등으로 개방하여 공간과 지역주민이 교류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봉안당과 커뮤니티 공간이 강하게 독립성을 띠어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보다는 자연채광과 함께 자연스럽게 동선과 기능적 특성이 융통성 있게 분리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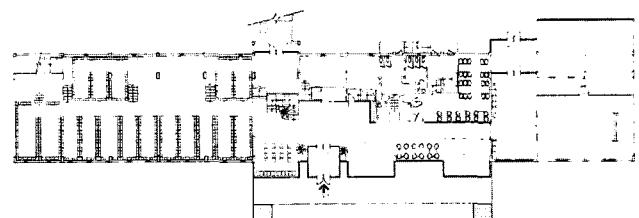


<그림 4>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공간 구획 및 동선

(3) 공간의 특성

전체 평면계획에서는 긴 건물의 형태를 삼등분하여 크게 봉안당, 공용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긴 평면의 특성상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직선을 이용하여 공간을 나누었다. 직사각형 형태의 봉안시설은 안정감 있게 봉안단을 설치할 수 있고 공용공간은 여러 사각의 형태들이 한 공간에 모여 형태의 반복과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그 밖스들을 이용

한 맵스에 투명성을 준다. 커뮤니티 공간은 공간의 가변성을 주기위하여 단순하고 모나지 않은 직선으로 공간을 계획하였다. 공간의 특성을 살린 평면 구성은 <그림 5>와 같으며 공간의 디자인별 특성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그림 5>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공간 평면 구성

5.3.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공간 계획 지침

봉안당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공간의 디자인 특성을 포함한 공간 계획 지침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2> 공간 별 특성 및 부분 평면 구성

공간 구분	공간 구성	디자인 특성	부분 평면 구성				
공용 공간	LOBBY	투명한 통유리를 출입구 전면에 사용함으로 시작적인 개방성을 띠며 내 외부 공간의 연계성을 가지며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이미지 월은 슬레이트석과 석재타일의 질감이 중후함을 더하면서도 자연적인 느낌을 가지며 넓고 일자의 안내데스크와 계단 주변으로 자연 조경을 조성하여 지역성을 강조하고 이용객에게 안정감을 준다.					
	휴게 공간	외부의 전경이 보이는 창가에 인접하여 여러 종류의 형태와 디자인의 가구로 낮은 천장과 박스형의 벽체들로 지루할 수 있는 이미지에 악센트를 준다.					
관리 공간	사무실, 통로	사무실은 사용자의 접근이 허시 가능하도록 진입부분에 반영하고 건물의 높지 않은 천장과 깊은 통로의 담담함을 밝은 석재타일과 자연조명과 인공조명의 조화로 유도하며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하여 공공성을 강조한다.					
입면							
참배 공간	봉안실	중복도 형식으로 양쪽으로 배치한 봉안실에는 자연광이 유입되도록 각 실마다 창이 설치되었다. 봉안시설에서의 유리창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자동형은 힘줄 시스템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유골의 자연통풍과 빛을 위하여 꼭 필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봉안단의 형태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독립형과 복합형의 두 종류로 제안한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봉안단의 형태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독립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복합형</td> </tr> <tr> <td></td> <td></td> </tr> </table> </div>	독립형	복합형		
독립형	복합형						
참배실	일실형과 합동실형을 함께 구성하고 봉안실과 인접한 참배 실은 4면을 벽체로 둘러싸여 엄숙함을 강조하면서 출입문이 없는 open공간으로 인접한 참배실과 상호 연결성을 준다. 공동 참배 실은 각각 주, 부출입구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기능을 원활히 하고 바닥의 따뜻한 느낌의 wood flooring과 살구색의 페인트 벽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입면							
커뮤니티 공간	LOBBY, 다목적 실, 강당, 전시실, 정보도서실	커뮤니케이션의 행태로 공간의 경험성을 반영하는 소통공간으로 각 영역의 가변성을 위하여 벽체들은 직선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다목적실은 참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성과 상호 작용성을 강조하고 필요에 따라 분리가 가능하도록 앞, 뒤로 문을 두었다. lobby는 휴게 공간 및 각 실의 대기공간으로 계획되어 각 실은 자연광의 적극적인 유입으로 개방성을 주며 유지와 관리가 용이한 무채색의 페인트 벽체로 마감하고 문과 가구에 포인트 칼라를 주어 지루함을 없애준다.					

<표 13>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공간 계획 지침

항목	내용
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안실의 공간을 소규모 실로 설치(사례 A, B)하고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여 가족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제안한다. 사례에서는 보여 지지 않았으나 참배실은 봉안실과 인접하여 배치하여 격리 배치하여 독립성을 주며 일실 형과 합동 실형을 함께 구성하여 독립적 공간과 공유 공간을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봉안당의 주 공간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목적실과 강당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들로 구성하여 봉안당과 커뮤니티 공간의 출입구를 분리하여 혼잡을 피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봉안당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은 필요에 따라서 영역의 가변성을 주고 공동기능이 가능한 실들로 구성하여 복합기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디자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작적인 개방성을 강조하는 재료 및 색체로 공간을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한다. 조명은 자연 채광의 유입(사례 A, B, C)을 강조하며 중정 뿐만 아니라 봉안실과 참배실내에도 조도와 온도조절을 위한 채광을 최대화 하여야 한다. 내 외부 공간의 연계성과 로비와 각 공간과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한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재료 및 자연 조경 조성으로 지역성을 강조하여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디자인한다. 공공성이 강한 공간은 접근이 허시 용이하고 통일된 마감재와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디자인한다.

6. 결론

인간의 삶에 대한 질의 향상에 따라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도 관습에 얹매어 물리적, 심리적으로 쉽게 변하기 힘든 공간들이 많이 있다. 봉안당 또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장 위주의 장례관습을 법 개정으로 쉽게 바꿔지는 않을 것이나 각 계의 관심과 노력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봉안당 내부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봉안당의 내부공간의 구성 및 특성을 파악하였고 커뮤니티 공간의 수용 가능한 실들을 포함한 공간계획 지침을 마련하였고 봉안당 공간을 선정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실내 공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본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 공간은 다목적인 열린 공간으로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새로운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 된 계획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은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없애고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된 커뮤니티 공간을 찾아서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둘째,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은 독립적이면서도 공간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복합적으로 융통성 있게 계획하여 관리와 운영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평면구성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적으로 분할하고 입면은 자연채광으로 개방성과 함께 환기 기능을 주고 마감 재료는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따뜻한 느낌의 자연 소재들을 사용하여 차갑고 무거운 이미지를 피하고 친근감을 갖도록 한다.

넷째, 봉안당 계획 시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실 구성을 뿐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의 특성인 지역성, 공공성, 개방성, 상호 작용성에 나타나는 공간 표현 요소를 반영하여 디자인되어져야 한다.

앞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봉안당을 통하여 무리하게 봉안 기수만을 늘려놓고 분양이 되지 않아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의 봉안당들이 과감히 지역과의 상호 연계를 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을 계획함으로서 지역과의 갈등요소를 줄이고 봉안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황수경,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제언, 한국 노동 연구원 매월노동동향, 2003. 11
- 김은정·박언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복합문화시설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4권 1호 2004. 4
- <http://www.remodelingsite.com/>
- 박영기, 커뮤니티시설의 배분모형 및 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권 6호 1994. 6
- 이진원, 커뮤니티 설계에 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2호 1994. 12
- 최진원·박재승, 납골시설의 공간구성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 한국 의료복지시설 학회집, 10권 2호 2004. 9
- 유복순, 공설 납골당 설치유형에 관한 연구: 광주 시 사례 중심으로, 한 경대학교 석사논문, 2004. 08
- 보건복지부, 화장율 통계연보, 2006
- 산업자원부 홍보 관리관실 홍보자료, 2006
-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1988
- 법제처, 종합법률 정보, <http://www.moleg.go.kr/>

<접수 : 2006. 10. 29>